

# 광양시, 친환경적 양돈 분뇨

## 처리 자연순환농업 실현 앞장

### 가축분뇨 액비화해 분뇨 처리문제 해소 기대

광양시는 축산분뇨 안정적 처리 위해 지난해 확보한 국비 2억6천7백만 원을 들여 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농경지로 환원해 친환경적으로 양돈 분뇨를 처리하고 자연순환농업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농촌지역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와 펜션 등 관광객의 증가로 축산농가와 인접한 민가 등에서 축산분뇨 악취로 인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분뇨 처리가 어느때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축산업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가축을 키우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다. 시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국제조약 이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영)광양친환경액비유통센터에서 양돈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액비화해 농경지로 환원 친환경적으로 양돈 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현재 광양에 돼지사육 9농가에서 7,0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돼지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축분을 액비화해 적합한 액비만 살포하고 있다.

김동순 축산팀장은 "앞으로 시는 액비성분과 부숙도 검증을 받고 시비

처방서에 의한 안전한 액비살포로 친환경적 자연순환 농업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영)광양친환경액비유통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액비유통센터 평가에서 A등급과 우수 액비유통센터로 선정돼 인센티브 사업비로 액비살포차량 2억 원, 액비성분분석기 및 부숙도판정기 6천7백만 원 총 2억6천7백만 원을 확보했다.

노후화된 기존 5톤 액비차량을 17톤 액비살포차량으로 교체해 양돈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신속하게 위탁처리 할 수 있게 되어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해소와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 고흥군 일본수출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 한·일 무역 분쟁과 관련 선제적 대응책 마련



고흥군은 최근 한·일 무역 분쟁과 관련하여 고흥군 소재 업체 대표와 의견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흥군에서 일본에 직접 수출하고 있는 주요 품목은 유자, 미역, 다시마,

파프리카 등이며 그 외에도 김 등 수산물 일부는 3차 가공방식으로 수출하고 있어,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 시 산지원료 가격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흥군에 따르면 "수산물과 신선농

산물은 아직까지 대일 수출 피해는 없으나 유자차의 경우 6월 기준 전년 동기 상반기 수출액이 업체별로 28%에서 56%까지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수입 규제가 발동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수입규제나 한국산 불매운동이 시작된다면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말 빠르게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한·일 무역 분쟁 피해기업 정부 지원 정책 반영에 적극 노력하고 일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유자차(35%) 등의 품목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신규 시장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시장 개척 바이어에게는 판촉비 지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추가예산 확보, 수출포장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행정 지원책을 강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흥=한윤섭 기자

#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더듬길 '8월 걷기 좋은길' 선정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더듬길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8월에 걷기 좋은 길 5선에 뽑혔다.

제암산자연휴양림에 있는 더듬길은 휠체어나 유모차를 타야하는 보행약자도 산림욕을 즐기며 5.7km 길이의

숲길을 산책할 수 있는 무장애 데크로드다. 최근에는 담양저수지 수변데크(900m) 구간에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해 시원한 야간 산책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보성군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제암

산자연휴양림은 전국 최대규모의 철쭉군락지로 유명한 일림산과 용추계곡 등 수려한 주변경관과 숙박시설, 교육시설, 모험시설, 치유시설 등 편의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최적의 힐링 휴양 명소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물줄기의 깊은 계곡과 물놀이 시설로 성수기를 맞은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 등 총 52명이 연일 투입되어 숙박시설 및 모험시설 등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숲을 가로지르며 짜릿한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마운틴슬라이드(숲속 미끄럼틀)가 곧 완공돼 제암산자연휴양림의 새로운 랜드마크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보성=안규일 기자

# 구례군, 산수유산업 활성화 해법 찾기 나서

구례군은 지난달 30일 산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에 대비한 사업계획 발굴을 위해 산동면 지역발전협의회 회원과 산수유 재배주인 및 가공제품 생산자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례산수유는 전국생산량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수유산업특구 지정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이며, 금년 9월에는 세계중요농업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산수유 자원 활성화를 위해 구례군에서는 산수유제품 가공공정 지원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지역산업 전반으로 파급되는 효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

구례군에서는 산수유산업을 통해 재배부터 가공, 체험, 축제까지 1차에서 6차산업까지 모든 산업으로 파급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구성단계부터 주민대표로 구성된 산동면 지역발전협의회 회원과 산수유산업과 관련된 모든 지역민이 참여한 가운데 산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 순천만에코촌 '토요 도깨비 마당' 운영

### 이달말까지 매주 토요일

순천시가 2019 순천 방문의 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대표적인 한옥 청소년 유스호텔인 순천만에코촌에서 지난달 27일부터 8월말까지 5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저녁 '토요 도깨비 마당'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순천 방문의 해 1000만 관광객 유치 달성을 목표로 한옥에 어울리는 여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름 성수기 순천만에코촌을 찾는 숙박객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도깨비야 놀자!'를 주제로 '푸드트럭 운영'과 학생 재능기부인 펜플랫 연주, 통기타 공연 등 버스킹형식의 '도깨비 음악회' 등 매회 다양한 재능기부 공연으로 운영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 곡성군 드림스타트 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곡성군은 오는 23일까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90명에게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들이 인터넷 및 스마트폰에 과도한 의존 현상을 보이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이해시키고, 올바른 사용습관과 대처능력 함양을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아동센터에 주 1회 강사를 파견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과 폐해를 알리고,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이용수칙 등을 지도한다.

곡성=김광휘 기자

# 순천국유림, 사유림 매수 순조롭게 추진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충과 국유림 경영임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유림매수가 올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의 2019년 사유림 매수 물량은 540ha(39억원)으로 상반기에 344(29억원)ha를 매수하였고 하반기에도 약 10억원의 예산으로 전남 동부권역 9개 시·군 200ha의 사유림을 사들일 예정이다.

매수 대상지는 여수, 순천,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지역의 사유림으로 국유림에 인접하거나 국유림경영관리에 적합한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한다.

또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김승호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항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책별 인사관리방안 안내